**† 겸 손 / 마더 데레사**

****

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 당신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

하나님과 마주하면 그대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며,

아무 것도 지닌 게 없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

(마더 데레사의 “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.” 중에서...)